

진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16만㎡ 해제

당정, 전국 21곳 여의도 면적 116배...군내면 나리·의신면 초사리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진도를 남동리·군내면 나리 등 진도군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16만㎡가 해제된다. 이 곳 주민들은 수십년간 묶였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5일 진도를 비롯해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국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

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전남에서는 진도군 16만㎡가 포함됐다. 군내면 나리, 의신면 초사리, 지산면 심동리, 임회면 상만리, 고군면 내산리, 진도를 남동리 일대다.

군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간 1만여건의 개발 협의를 맡아왔는데, 이번 해제로 1300여건에 달하는 협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은 아울러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에 관한 협의 업무를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반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흑산도·제주 해역서 남송시대 도자기 발굴

문화재청 550여점

흑산도·제주도 해역에서 800년 전 중국 도자기 등 유물 550점이 발굴됐다.

남송(南宋) 시대로 추정되는 도자기는 '저장성 통취안요'에서 만들어졌다. 남송은 금나라에 북부 지방을 빼앗긴 송나라가 항저우(杭州)로 천도한 시기와 맞물리며,



신안 흑산도 해역에서 출토 된 중국 도자기.

1127년부터 1279년까지 존속했다.

특히 흑산도 바닷길은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경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송나라에서 고려로 오는 항로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운이 쓴 '해동역사'에도 송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길목으로 표현돼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과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해역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도자기 550여 점을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해역은 1996년~1998년 3년 간 세 차례에 걸쳐 수중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인근 해역 제보로 긴급히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국의 고급 도자기

산지로 알려진 '저장성 통취안요'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청자 접시 등 50여 점을 확인했다. 당초 해역 일대 유물이나 선체가 추가로 매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으며 '금옥만당'(金玉滿堂), '하빈유법'(河濱遺範) 글자가 새겨진 청자발 조각편을 포함해 500여 점의 유물이 추가로 확인됐다.

두 해역에서 확인한 유물은 모두 중국 도자기이며 일부 중국 푸젠성에서 제작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장성 통취안요'에서 제작한 청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흑산도·제주도 해역은 고려와 남송,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로서 중요한 통로였음을 보여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산 '천리안 2A호' 발사 성공...개발 7년 6개월만

5일 오전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 발사를 알리는 안내음이 들리더니 이내 높이가 54.8m에 이르는 아리안 발사체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화염을 내뿜는 발사체는 수직으로 치솟더니 하늘에 뿌연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위성 분리'를 알리는 표지판에 불빛이 들어오자, 통제동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2011년 7월 개발이 시작된 지 7년 6개월 만이다.

천리안 2A호를 탑재한 아리안-5 ECA 발사체는 이날 오전 5시 37분(현지시간 4일 오후 5시 37분) 발사됐다. 발사를 진행

하는 아리안스페이스사가 제시한 목표 발사시간은 오전 5시 37분이었고, 날씨 등을 고려한 발사 가능 시간은 목표 시간부터 오전 7시 20분까지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발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발사 뒤 3분 정도가 지나 위성을 보호하는 묘개인 페어링이 분리됐으며 25분 뒤 연이케도에 진입했다. 전이궤도는 지구와 가깝게는 251km, 멀게는 3만5822km인 지점을 잇는 타원궤도다.

34분 뒤인 오전 6시 11분 고도 약 2340km 지점에 도달한 발사체에서는 위성이 분리됐다. 이로부터 5분이 흐른 오전 6시 16분 위성은 호주 동가라(Dongara)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5시 37분(현지시간 4일 오후 5시 37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호'(GEO-KOMPSAT-2A)를 탑재한 유럽연합 아리안스페이스의 로켓 '아리안-5ECA'가 발사되고 있다. 이날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 2A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본체의 설계부터 조립, 시험까지 완성한 '도중 정지궤도 위성'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갯벌서 낙지 고밀도 집약양식 시험

전남해양수산기술원은 전국 최초로 갯벌에서 낙지 고밀도 집약양식 시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어업인의 호응이 좋은 낙지목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양식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낙지 주 사육자인 갯벌에 조위망(潮位網)을 설치하고 그 안에 어미 낙지를 방사해 대량 생산하는 양식시험이다.

조위망은 조석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양식 낙지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그물이다.

기술원은 그동안 어촌계 마을 어장에 일정한 구역에 낙지목장을 조성하고 어미 낙지를 방류, 자원량 회복을 위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낙지를 잡은 육상수조에서 집

약적으로 양식하는 것은 서로 잡아먹는 공식현상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술원은 낙지목장과 함께 넓은 갯벌을 활용한 집약양식을 시험하기로 했다. 내년 초 먹이가 풍부한 최적의 사업지구를 조사해 선정하고 지주목과 조위망을 설치한 후 어미 낙지의 교배·방사를 통해 생산량 증대 효과를 분석한다.

국내 낙지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6067t, 1478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 생산량은 4036t으로, 전국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량(3만6265t, 2억4300만 달러)보다 턱없이 부족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정국 기자 jwpark@kwangju.co.kr

경매비법전수

- NPL과 특수물건만 교육
- 입장비용 교육비 1200만원
- 배우면서 투자가능!

(주)오천경매.010-3605-5000

토지

※임야/단독섬/지분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10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12월 21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익을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소유공장 만들어 드림!

2018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0일(화) ~ 2018년 12월 28일(금)
• 교육기간 : 2018년 12월 21일(금) ~ 2019년 2월 15일(금)
매주 금요일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상당지도교수 H. 010-9416-1200 T. 062)230-77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감나무밭 746㎡ 전원생활용 4천만원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평읍 노동리 땅 6608㎡ 대형 기와집·사찰 적합 8억7천
- 나주시 산포면 산재리 땅 3044㎡ 도로있음 투지에 양호 3억4천
- 남평읍 상곡리 땅 6608㎡ 주택있음 전원생활 최적 1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사찰·빌라·다세대 적합 1억5백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주택있음 은행 9600 매도 3억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8천
- 광산구 대산동 집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물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물 279㎡ 4억5천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룠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잘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0억)
- 완도를 새모델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검정기이하 23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38평, 사무실 전용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물수리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가능
- 시세 - 1억1000만원
- 급매 - 7100만원
- 현재 보500만원 월60만원 임대중

문의. 010-6834-7400